

노인복지 1647억원 투입 ‘편안한 생태도시’ 만든다

순천시가 ‘100세 인생!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한 생태도시’를 목표로 2023년 노인복지 예산과 사업을 확대한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노인인구는 4만8277명으로 전체 인구 중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들 비롯한 전 세대가 행복하고 편안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 기준 사회복지 전체 예산 4280억원 중 38%인 1647억원을 노인복지 사업에 투입했다.

●힘이 되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적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38억 6200만원을 증액한 1255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는 370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80명이 증가하였으며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분야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건강바우처 사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급여 이용자까지 확대해 1만2600명의 대상자에 연 12만원의 바우처 급여를 제공한다. 5월 중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1억1000만원을 배정했다.

●‘편안한 노후’ 순천형 통합돌봄 추진

순천형 통합돌봄 추진으로 순천형 AI 반려로봇 ‘루미’를 확대 보급한다.



순천시가 ‘100세 인생!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한 생태도시’를 목표로 2023년 노인복지 예산과 사업을 확대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어르신 활동모습. 순천시 제공

고령친화 환경조성 총력 노후실현·통합돌봄 추진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도

전년도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원을 배정했으며 거동불편 및 우울증 어르신에 반려로봇을 100대를 추가 보급해 위기상황 대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지킴이단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5억 3600만원을 배정하고 대상자는 45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명 확대했다.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순천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시비 5억1600만원을 배정했으며 600명의 대상자들이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

거, 건강, 돌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복지 핵심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등록경로당 운영비, 시설환경개선비, 양곡비 지원 등에 41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

686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30개소에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을 추진한다. 올해 4개소의 경로당을 신증축하며 150개소의 경로당에 물품보강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한다.

서면 선편리 일원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추진에 17억6400만원을 배정했으며 2025년까지 차대노인 지속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사회활동 참여 노후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신체·사회·정서적 건강하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3개 노인복지관 운영에 1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3개 노인복지관에서 4108명의 어르신들에게 여학, 정보화, 댄스, 건강, 취미분야 등 77개 강좌를 운영하고, 경로식당에서는 일 평균 740명의 어르신들에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다양성이 보장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시사특목, 어르신 자서전쓰기, 노인부부 관계개선 사업 등 각 복지관별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9월 중 어르신작품 합동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어르신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차량2부제 실천운동 시행 순천시, 박람회 기간 자율참여

순천시가 10년 전에 비해 차량 등록대수가 10만대에서 16만대로 증가해 박람회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 2부제 실천운동을 추진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차량 2부제는 홀수날에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을, 짝수날에는 차량번호가 짝수인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다.

시는 차량 2부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순천시청 공무원과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며 공공기관·유관기관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정원박람회기간(4월1일~10월31일) 중에는 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홍보와 실천운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시내버스 5G 공공와이파이 도입 순천시, 호남권 최초

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모든 시내버스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호남 최초로 시내버스에 4세대(4G) 와이파이를 구축한 바 있으며, 최근 통신사와 협의를 마치고 이번 달 시설 고도화를 통해 순천 시내버스 176대 전체에 5G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4월 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순천시가 펼치고 있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실천운동’과도 맥을 같이한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가입통신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Suncheon_WiFi_Free’를 선택 후 이용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확대 순천시, 기본생활보장 강화

순천시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한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최대 162만원으로 상향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의고소득자이거나고재산(9억)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해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상폭은 생계·주거·교육급여는 1100만원, 의료급여는 19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순천시, 444동 지붕개량

순천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 희망수요가 많은 주택 슬레이트 물량을 확대해 총 444동(주택 359, 비주택 70, 취약계층 지붕개량 15)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62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인 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이며 축사·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최대 200㎡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여야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면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주택 444동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의회, 올해 첫 추경 1조4075억원 확정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올해 순천시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45억원이 증액된 1조 40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호)는 14일 제 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청령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했

다. 순천시 현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해 수정가결 했다.

문화경제위원회의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5건 원안 가결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사단법인 전남도영양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예산보다 145억원을 증액했다. 최종 1조 4075억원을 확정했다.

김태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정광현 의원의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장경순 의원이 순천여중, 동산여중, 이수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촉구했으며 최미희 의원은 순천시가 정부의 지침대로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촉구했다. 순천=배서준 기자